



한국고분자학회
36대 회장 차 국 현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으로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1976년 창립된 이래 지난 42년 동안 학계 및 산업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국내 최고의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회 회원 수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고, 봄가을 학술대회에는 2,000편이 넘는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일본고분자학회, 대만고분자학회 등 아시아권 고분자 관련 학회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우리 학회 회원들의 높은 수준의 논문 발표를 통하여 국제적인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세계적 생산기반을 가진 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범용 고분자 소재에서, 전기 전자, 에너지, 바이오, 환경 소재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글로벌 추세에서 새로운 소재 확보 및 가공법을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 변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의 “추격모방형(Fast Follower) 연구”에서 “선도창의형(First Mover) 연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분자학회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과학기술을 제안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외부로 부터의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는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는 기존의 분자전자 및 의료용고분자로 대변되는 2개 부문위원회에서 새롭게 발족될 콜로이드 및 분자조립부문위원회 같은 새로운 부문위원회를 추가하여 연구 분야를 다양화하여 학회 회원수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부문위원회 간의 융합적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학회 세션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세 먼지 저감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같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고분자 관련 교류를 넘어서 유럽고분자연합(EPF)과 미국화학회(ACS) 고분자 분과들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고분자학회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IUPAC Macro 학술대회가 한국고분자학회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대형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편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회 회원들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분자학회 회원들의 우수성 및 뜨거운 열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순조롭게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우리 고분자학회는 또 한번의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김양국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권용구 영문지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 편집위원진, 그리고 올 한해 살림을 이끌어 갈 이종휘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사진들과 함께 학회가 한단계 성장하도록 혼신의 힘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를 대표하여 2018년 한해 동안 우리 학회에 보내주신 많은 회원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 풍요와 재물로 대변되는 “황금돼지” 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한국고분자학회 회장 차 국 현